

# 살처분 보상비 상향 조정 및 간접지원책 마련

◇ 취재 / 김종준 과장/기자  
(jjun@poultry.or.kr)

지난달 26일 현재까지 강원도, 전북, 제주도를 제외한 6개도 2개 광역시 17개 닭·오리 농장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기점을 중심으로 위험 지역 3km까지 닭·오리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여 완료하였다. 이에 본고는 살처분 방법에서 보상비 지원, 생계비 지원, 가축 입식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 1. 살처분 및 매몰 현황

### 1) 닭

1월 26일 현재 충북 음성군, 진천군, 충남 천안시, 경북 경주시, 경남 양산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123개 양계농가의 137여만수가 살처분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계종별로는 산란계 1,283,379수, 육계 124,076수, 종계는 38,198수, 토종닭·오골계·브랜드닭 34,729수가 살처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남 양산지역은 산란계 집단 사육지가 있어 살처분수가 72만수에 이르렀고, 충남 천안시 풍세면 지역은 500m이내 닭·오리 21만수를 살처분 진행중이다(표1,2).

### 2) 산물 및 원재료

닭 이외에 오염될 수 있는 산물이나 원재료를 매몰하였는데 주로 계란, 사료, 동물약품, 계분, 난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방역관이 오염물질로 판단된다면 매몰 명령을 내리고 있다.

1월 26일 현재까지 각 시도별 매몰된 생산

표1. 전국 닭·오리 살처분 현황

도별	'02.12현재			대 상		작업현황	해당지역
	축종	농가	수수(천수)	농가	수수(1수)		
광주	닭	888	252			완료	광주시
	오리	71	269	2	24,200		
	소계	959	521	2	24,200		
울산	닭	979	524	19	87,289	완료	울주군
	오리	134	12	11	2,877		
	소계	1,113	536	30	90,166		
경기	닭	16,711	26,424	6	200,899	완료	이천시
	오리	1,212	888	2	146,428		
	소계	17,923	27,312	8	347,327		
충북	닭	9,438	6,422	16	182,420	완료	음성군, 진천군
	오리	1,017	718	44	599,476		
	소계	10,455	7,140	60	781,896		
충남	닭	21,660	16,830	54	87,700	진행중	천안시
	오리	1,544	361	15	22,119		
	소계	23,204	17,191	69	109,819		
전남	닭	25,840	11,148			완료	나주시
	오리	2,319	3,824	25	229,288		
	소계	28,159	14,972	25	229,288		
경북	닭	38,114	15,189	4	198,074	완료	경주시
	오리	1,174	177	1	13,095		
	소계	39,288	15,366	5	211,169		
경남	닭	22,442	5,896	32	724,000	진행중	양산시
	오리	951	205	3	9,456		
	소계	23,393	6,101	27	632,456		
계	닭	171,738	98,773	131	1,480,382		2개 광역시 6개도
	오리	11,099	7,378	103	1,046,939		
	합계	182,837	106,151	234	2,527,321		

표2. 계층별 살처분 현황

도별	용도	살처분수수	도별	용도	살처분수수
울산	산란계	86,372	경북	산란계	198,074
	육계	-		육계	-
	종계	-		종계	-
	토종닭	917		토종닭,오골계,자연닭	-
	소계	87,289		소계	198,074
경기	산란계	107,813	경남	산란계	724,000
	육계	81,226		육계	-
	종계	-		종계	-
	토종닭	11,860		토종닭,오골계,자연닭	-
	소계	200,899		소계	724,000
충북	산란계	97,220	충남	산란계	69,900
	육계	25,050		육계	17,800
	종계	38,198		종계	-
	토종닭,오골계,자연닭	21,952		토종닭,오골계,자연닭	-
	소계	182,420		소계	87,700

표3. 생산물 및 원료 매몰현황

(단위: 계란, 개, 사료, 톤, 난좌, 개)

도별	생산물및원료	매몰량	도별	생산물및원료	매몰량	비고
울산	알	223,126	경북	알	1,005,390	
	사료	6.6		사료	48	
	난좌	2,700		난좌	18,000	
경기	알	181,717 (9,525)	경남	알	집계중	
	사료	40		사료	집계중	
	난좌	160,500		난좌	집계중	
충북	알	2,726,362	충남	알	2,147,000	
	사료	집계중		사료	집계중	
	난좌	집계중		난좌	집계중	

※ ( ) 종란

물 및 원재료를 보면 알 6,283,595개, 사료 94.6톤, 난좌 181,200개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닭 살처분 보상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아 사료와 난좌에 대한 집계가 늦어지고 있다(표3).

### 3) 인력동원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초기 지역주민에게 항바이러스 예방주사를 접종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살처분에 인력동원과 장비 투입도 많지 않아 큰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발생량이 늘어나고 살처분 물량이 늘어나면서 군병력 투입이 이루어져 살처분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그럼에도 케이지에서 닭을 꺼내어 마대에 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신속한 살처분의 걸림돌이 되었다.

살처분 수수가 가장 많은 경남 양산의 경우 닭 수거 전문 인력과 인력시장 인부를 채용하여 살처분 작업에 활용하여 방역상 타능가에 전파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살처분 인력관리 및 방역수칙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달하기도 하였다.

표4. 동원인력

도 별	계	공무원	군인	유관단체	기 타
경 기	0 (337)	0 (149)	0 (150)	-	0 (38)
충 북	0 (2,706)	0 (616)	0 (1,693)	-	0 (397)
충 남	0 (794)	0 (582)	0 (65)	-	0 (147)
전 남	0 (720)	0 (310)	0 (120)	-	0 (290)
경 북	0 (649)	0 (329)	0 (271)	-	0 (49)
경 남	0 (2,866)	0 (1,074)	0 (622)	-	0 (1,170)
울 산	0 (434)	0 (194)	0 (150)	-	0 (90)
계	0 (8,449)	0 (3,254)	0 (3,046)	-	0 (2,149)

이와 같이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울산시, 경상남도 등에 살처분에 투입된 인력은 공무원 3,254명, 군인 3,046명, 기타 방역지원본부 및 관련협회 및 농가 2,149명 총 8,449명으로 파악되었다.

4) 살처분 닭 매몰 및 관리

닭·오리 사체 및 오염물건의 매몰 장소는 집단가옥·수원지·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였다. 사체를 매몰할 때에는 바닥과 벽면 모두를 포장하고, 바닥 비닐로부터 1m 높이의 흙을 투입한 다음 3cm 두께로 생석회를 도포하였다. 여기에 2m 높이로 사체를 투입하고 생석회를 살포하되 토질이 모래 등 부스러지거나 단단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그 위에 2cm 두께로 생석회를 도포하여 마무리하였다.

가스 배출관을 사체와 접촉하도록 설치하고 설치 개수는 매몰당시 90m<sup>2</sup> 기준하여 최소 5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하고, 매립지 주변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되 배수로는 저류조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천시 빗물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둔덕을 만들었다.

닭의 사체 매몰지 관할 시장·군수는 당해 매몰지 주변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매몰지 사후관리는 매몰한 날부터 1월 간격으로 최소 6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살처분 매몰은 살처분 농장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장소가 없어 인근 농장이나 시·군유지 등 타장소로 사체를 옮겨 매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주변 농가들은 소독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봄철이나 여름철에 사체가 부패되어 매몰지가 함몰되는 사례와 가스배출을 위하여 가스배출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배수로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될 지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사례는 별도로 매몰하거나 일부 농가에서는 계분에 섞어 매몰하였다.

2 살처분 및 매몰 보상비

1) 닭 관련 살처분 보상비 상향 조정

현재 살처분 가축에 대하여 보상금은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에 의거 지급되고 있으나 가격 진폭이 크거나 상한액이 마련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기준은 닭 부문은 관련 협회(대한양계협회) 및 단체와 협의하여 보상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평가액 산출은 양계협회가 시장가격을 조사·공표한 품목(병아리, 종란 등)은 당해시가 기준을 적용(발생후 가격이 급락한 점을 감안 최초 신고일 2003년 12월 10일 이전 1주간 평균가격과 살처분 당시 시가 중 유리한 가격)하거나 산지 시가가 조사되었으나 가격 진폭이 커서 적용이 어려운 품목은 시가와 생산비를 병행하여 산정한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령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보상

금 평가위원회에서 산정하여 농가에 지불되었다. 그러나 계열주체와 계약사육을 하는 농가의 경우 보상금 지급이전에 가지급금 조차 받

표5. 살처분 닭 보상평가 기준

품목		보상평가기준(상한액)	비고
산란계	10주령	2,561원/수	환우산란계는 금번에 한해 1수당 350원으로 산정(98주령이후는 300원/수)
	21주령	7,401원/수	
	78주령이상	300원/수	
	병아리·10주령미만	병아리상한가격과 10주령 상한가격을 기준하여 주령별 산정	
	10주령이상·21주령미만	10주령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기준하여 주령별 산정	
	21주령이상·78주령미만	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하여 주령별 산정	
육계	병아리	320원/수	백세미입증자료첨부(병아리구매증명서 등)
	육추(520g 20일령)	991원/수	
	삼계(500g내외 백세미)	1,100원/수	
	출하단계(1.55kg)	1,111원/kg	
병아리·식란	산란 및 육용병아리 및 식란	대한양계협회 발행 양계육보 산지가격 기준 (2003년 12월 10일 이전 1주일 평균가격과 살처분 당시 시가중 유리한 가격 적용)	
종계	산란용(21주령)	12,250원/수	
	육용(28주령)	13,950원/수	
	산란용·육용(70주이상)	1,400원/수	
종란	일반종란	병아리가격의 1/2	
	부화중인종란	부화기입란후 7일내 종란은 병아리가격의 2/3 그후의 종란은 병아리가격	
브랜드제품	닭	대한양계협회에서 제시한 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되, 종계 상한가격을 초과하지 못함	
	알	납품업체와의 계약서 최근 거래기록 등을 감안 결정하되 브랜드란과 일반란 구별	
기타	재래닭 및 토종닭	대한양계협회 조사 재래닭의 산지가격을 기준함	
	오골계	해당품목의 최근 거래내역을 상한액으로 하되 종계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계약농가가 많은 육계의 경우 소유권이 계약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농가와 계열주체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닭 관련 품목별 보상금 기준을 보면 산란계는 70일령, 21주령, 78주령 3단계로 나누고, 최고 상한액을 21주령에 7,401원으로 정하고, 주령 단위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육계는 병아리, 육추(삼계), 출하단계 3단계로 나누고, 출하단계(1.55kg) 상한액을 1,111원/kg으로 정하였다. 병아리·식란은 양계속보 산지가격을 기준하되 2003년 12월 10일 이전 1주일 평균가격과 살처분 당시의 시가중유리한 가격을 적용키로 하였다. 종계는 산란용(21주령) 12,250원/수, 육용종계(28주령) 13,950원/수, 70주령이상 1,400원/수를 상한가격을 적용하게 되었다.

부화중인 종란에 대하여 보상 기준을 신설하였다. 일반종란은 병아리 가격의 1/2이고, 부화중인 종란은 부화기 입란후 7일 이내의 종란은 병아리의 2/3, 그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

격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살처분 당시 브랜드화 된 계란을 생산, 계약업체에 정기납품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된 닭은 양계협회에서 제시한 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되 종계 상한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다.

## 2) 오염추정 물건 보상금

살처분 농가의 오염 추정 물건은 사료, 난좌, 계란, 첨가제, 동물약

품, 깔짚 등이다. 1월 24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시도 담당자에 의하면 구입단가를 그대로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 3. 간접지원대책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피해를 당한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의 직접적인 피해금액이외에 닭을 사육하지 못한 기간동안 생계안정자금 지원, 가축입식자금 지원 등 간접지원을 하고 있다.

표6. 농가 규모별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준 (단위 만원)

살처분수수	산란계·종계	육계
1천수 미만	100	50
1천수 - 3천수 미만	200	100
3천수 - 5천수 미만	400	200
5천수 - 7천수 미만	600	300
7천수 - 1만수 미만	800	400
1 - 1.5만수 미만	1,000	500
1.5 - 2만수 미만	1,000	800
2만수 이상	1,000	1,000

### 1) 생계안정자금 지원

이번에 살처분한 농가에 대하여 수익 재발생시까지 호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자금을 받은 농가가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1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운다면 농가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입식 및 안정자금 지원

가축입식시 가축비 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융자 지원할 수 있고, 발생지역 이동제한 농가에서 병아리 재입식을 하지 못한 농가에게 호당 1,000만원(축산발전기금 50%, 지방비 50%) 한도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영업을 중단한 도계장 및 부화장에 대해서도 연리 3%, 2년 거치 일시상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 3) 세금 및 공과금 혜택 부여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중고생 자녀 학자금을 1년간 감면해 주고, 축발기금, 농축산경영자금, 농특회계, 부채대책자금 등에 대하여 2년간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하였다.

농가별 30% 이상 자산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각종 세금의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6개월)을 두게 하였다.

## 4. 농가 준비사항

살처분 보상비에 대하여 오골계, 토종닭, 육용종계 농가들이 현 시가 반영이 적다는 의견

을 내 놓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군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농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보상비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양일지 등 명확한 증빙서류를 보유하거나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의견이다.

## 5. 일본의 사례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와 더불어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라오스, 대만, 캄보디아에서 발생하여 살처분을 실시하였다.

일본농업신문 1월 16일자에 따르면 일본 농수성은 지난 14일 닭의 폐사율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닭이나 계란 등의 이동제한을 받고 있는 구역 내의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경영유지자금에 의하여 저리로 융자한다고 발표하였다고 전하였다.

대출 한도액은 이동제한에 따른 닭이나 계란을 출하하지 못하는 농가에는 경영 지속을 위해 100수당 4만엔으로 하고 대출이율은 모두 1.425% 이내로 하고, 상환기한은 경영 재개에 따라 1년과 5년으로 나누었다고 한다.

닭의 살처분 농가의 경영 재개를 위해 개인 경영에는 2,000만엔, 법인경영에는 8,000만엔으로 하고, 살처분된 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평가액의 80%를 보상한다고 전하였다. **양계**